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활동과 향후 사업 방향

1. 출발: 3월 3일, 그 첫 걸음

2026년 3월 3일, 3·1절 107주년을 맞아 종교, 학계, 문화, 시민사회 각계 원로 153인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손을 맞잡은 출발점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반목의 씨를 뿌렸고, 경쟁과 갈등이라는 원치 않는 열매를 맺었다”는 기성세대의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반도체, 방산, K-컬처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자살률은 OECD 1위이고 저출산은 인류 역사의 기록을 경신하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까지 겪은 이 역설의 땅에서, 원로들은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앞에 나섰습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중도, 성찰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유연하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열린 공론의 장입니다.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운동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2. 공론의 토대: 원로 대담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동행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2045년을 향한 비전을 모색하는 지적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중앙SUNDAY」와의 협력으로 두 차례의 원로 대담을 진행한 것이 그 결실입니다.

6월 27일자 대담에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회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헌정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했습니다. 포용과 대화가 사라진 대의제의 한계를 짚고, “각계의 리더들이 조금씩 나누는 절제의 미학을 갖춰야 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습니다.

7월 4일자 대담에서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부영 준비위원장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마주 앉아 2045년을 함께 상상했습니다. “공존·절제는 정치의 덕목이며, 남은 20년간 이를 현실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되찾아야 한다”는 다짐이 두 시간 반의 대담을 관통했습니다.

두 차례의 대담은 1960~70년대 법정 스님·김수환 추기경·강원용 목사의 종교계 연대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잇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종교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초당파적 도덕적 권위를 지녔던 시대와 달리, 오늘은 원로, 성직자, 여성, 청년이 함께 그 역할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두 대담을 관통했습니다.

3. 두 차례의 공론마당

□ 제1차 공론마당

제1차 공론마당은 2026년 6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생명·생태 / 평화·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6·10 만세운동 100주년이자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날, 생태학자, 법철학자, 청년 활동가들이 원로·중견·청년 3세대가 어우러져 3시간의 토론을 펼쳤습니다.

생명·생태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가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내파(內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후·생태 문제는 특정 진영의 의제가 아닌 문명 전환의 문제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평화·민주주의 세션에서는 “권위주의 40년, 민주주의 40년, 이제는 민주공화국 40년으로 바뀌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청년 세대의 극우화가 이념이 아닌 고독의 문제라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좌장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이날 논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화·공론·관계, 국민동행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제2차 공론마당

제2차 공론마당은 7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기술·경제·노동 / 사회·교육·세대·젠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차에서 확인한 철학적 토대를 경제, 교육, 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기술·경제 세션에서는 AI 시대 한국의 좌표를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전환기마다 해낸 저력에 대한 신중한 낙관이 제시됐습니다. 사회·교육 세션에서는 한국 10대 자살 증가율 세계 최고 수준, 초등 교실에서 자라는 극우 놀이 문화 등 엄중한 현실이 제시되며 기성세대가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좌장 김태일 전 총장은 두 차례 공론마당의 핵심어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주의, 공화, 청년, 숙의. 이 운동은 답을 정해놓고 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운동입니다.”

4. 향후 사업 방향

두 차례 공론마당의 논의와 원로 대담, 창립선언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동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창립대회 이후 공동대표, 이사회,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확정해나갈 예정입니다.

공론화와 정책 연구 - 복합 위기 극복과 국가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와 학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보고서 발간과 입법 제안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회통합과 시민 공론장 - 이념 대립의 당사자들이 같은 자리에 앉는 '포용의 논쟁', 소규모 원로 대화 모임 등을 통해 원로, 성직자, 여성, 청년이 함께 대화하고 공감을 넓히는 자리를 만들어갑니다

기후·생태와 미래세대 - 기후·생태 위기를 진영을 넘어 공론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을 연구·개발합니다. 세대 대화 프로그램과 미래세대 아카데미를 통해 기성세대의 성찰이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연대 - 한반도 평화를 남북 거래의 일상적 가치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펼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세계와 나눕니다.

논의의 기록과 사회적 자산화 - 모든 사업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정권과 시대를 넘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보존합니다.

5. 앞으로의 여정

준비위원회가 쌓아온 원로 대답과 두 차례의 공론마당은 국민동행이 어떤 운동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먼저 듣고, 함께 생각하며, 스스로 물음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순수 민간의 힘으로, 소액 정기 후원으로 함께하는 국민발기인과 각계의 뜻 있는 인사들이 이 운동의 주인입니다. 지난 광복 80년,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가장 큰 힘이 언제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왔듯이—앞으로의 100년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